

남녀 고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연구

정 의 남* · 박 신 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과 함께 정신문화가 물질문화를 따르지 못하는 문화 지체 현상으로 청소년의 가치관과 역할에서 혼란을 가져왔으며(김익기, 1991), 서구의 성개방 풍조의 유입과 성의 도구화, 상품화로 인한 성문화의 범람, 특히 대중매체의 노골화된 성적 표현, 향락산업의 번성 등은 청소년 사회에 큰 영향을 주어,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의식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음성적이고 퇴폐적인 성지식의 급속한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더욱 성으로 인한 피해와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고민은 상상외로 큰 것인데 비해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김명옥, 1984; 최희정, 1985; 김소야자, 1986).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으로 생식기관이 성숙단계에 이르고 정신적으로는 인지발달로 자신의 실체를 살펴보고, 자신이 처해있는 세계와 성의 의미를 생각하며 성인으로서의 역할이나 개성을 키우려는 계획과 생애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은 성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김영희와 이명화, 1997).

최근 몇 년 사이에 성희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으며, 1992년 2월 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되고 동년 7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된 것은 1993년 10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에 의해서이다(김양희, 1995).

그동안 직장내 근로자들, 특히 직장 여성들이 직장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성적 차별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성희롱을 당해 왔지만 이것은 일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그것이 크게 사회 문제화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이들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호소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들이 직장내의 지위를 악용하여 해고나 부서이전등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중의 피해를 받아왔던 것이 현실이다(이성은, 1995).

1991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의의 직장내의 성폭행에 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83.6%가 언어폭행을, 24.2%가 물리적 폭행을, 15.4%가 성적 폭행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장필화 등, 1994). 1993년에 한국 여성 민우회의 성희롱 실태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여성근로자로 구성된 조사대상자 중 87%가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공미혜, 1995)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희롱이 근로현장에서 주요 문제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 영동전문대학 교수

** 경희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그러나 아직 성희롱이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하는 성희롱에 대한 개념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고, 성희롱의 개념은 물론 성희롱의 선행조건과 결과, 상황적 변수들, 희생자 및 가해자의 특성이나 성희롱에 대한 전형적 반응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태이다(김양희, 1995).

이와 같이 직장내 성희롱 사례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실태인데 반해,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성인근로자의 성희롱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태이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성적주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성역할을 습득하고, 자신에 성에 대해 책임질 것을 준비하는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성희롱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코저, 성희롱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 일부 청소년 성희롱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10대 잡지 "seventeen"에서 학교에서 성희롱 경험이 92%가 있다고 응답했으며(LeBlanc, 1993), AAUW(1993)에서 8~11학년 남녀학생 1500명에 대한 조사에서 여학생 85%, 남학생 76%가 성희롱을 경험했고 31%가 종종 경험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한 연구발표에서는 54% 여성이 이미 16세에 도달되기 전에 원치않는 성희롱경험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Changing the Landscape, 1993).

연구에서 10대 소녀들이 성희롱 경험 후 첫 번째 나타나는 정신적 반응은 자존심의 저하와 우울증이라 보고하였다(Watkinson, 1995). 교육현장에서 성희롱 당한 후 나타나는 부정적 반응은 집중력의 저하, 불안정, 성적 저하 등이며 그리고 그 이후 그 여학생이 그런 불쾌한 행동에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잃어 버리게 된다고 보고하였다(Bryant, 199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희롱의 의미를 고찰하고, 일 지역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이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남녀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와 성태도는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성희롱 예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는데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희롱의 태도를 비교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희롱 경험을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성희롱의 태도

성희롱에 대한 가치나 주관성 즉 남 여간의 성희롱에 대하여 반응하는 다른 인식이나 해석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신혜숙(1996)의 논문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후 성희롱 태도를 4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 문항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처리하여, 유형별 점수를 보았다. 또한 고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주요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한 태도의 1순위, 2순위를 파악하였다.

2) 성희롱의 경험

청소년들이 학교, 가정, 사회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성희롱 내용 및 경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으로 남녀 고등학생이 경험한 성희롱의 내용과 의미있는 성희롱 경험과 관련된 제특성, 즉 경험시 나이, 가해자의 나이, 성별, 관계, 경험 후 피해자의 행동과 느낌 등을 의미한다.

II. 문헌 고찰

1.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은 영어로 "Sexual harassment"이며, sexual은 성적(性的)이란 뜻이고, harassment는 '괴롭힘', '귀찮게 굶', '지긋지긋하게 굶'이란 뜻이다. 따라서 Sexual harassment는 '성적으로 귀찮게 굶', '성적으로 지긋지긋하게 굶'이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김학준과 강기원, 1995).

성희롱이 미국에서 Sexual harassment로 명명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미국의 경우 조직 내에서 성적인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성폭력과는 다른 명명이 필요함을 느끼고 1976년에 Sexual harassment라는 명명을 만들게 되었다(Livingstone, 1982). 다른 서구의 여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각각의 명명은 다르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unwanted intimacy로, 이탈리아는 sexual molestation으로, 프랑스는 sexual blackmail등으로 그 명명을 달리 하고 있다(ILO, 1992).

우리 사회에서도 역시 "우조교 성희롱 사건"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면서 "성희롱"이라는 단어로 일반적인 명명이 시작되었다. 이 명명은 심영희에 의해서 1989년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다(심영희, 1989). '성희롱'이 아닌 다른 명명으로 신성자(1993)는 "성적 성가심"을 제기하였고, 한인섭(1993)은 성희롱 대신 성적 모욕으로 부르자고 주장하였다.

Catharine A. Mackinnon(1979)은 성희롱이란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성적인 요구를 부과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미연방 평등고용기회 위원회(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의 성차별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원치 않는 성적인 접근들, 성관계의 요구들, 그리고 그밖의 성적인 성격을 갖는 언어적 혹은 육체적 행위'라 하였다.

Crocker(1983)는 성희롱은 주관적, 상황적, 해석적 개념이므로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희생자 관점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개념 설정의 원칙을 제시하였고, Pukett(1985)은 "원치 않는 성적 관심"이라고 규정하였고 Gutek과 Dunwoody(1987)는 "일과 관련한 요구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성희롱이다"라고 명시하면서 "이성애에 대한 순수한 호감과 성희롱을 구별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성희롱을 정의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Stanko(1988)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규정하였다.

Friedman(1992)은 "성희롱이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일어나게 되는 행위"라는 것이다(우영은, 1994). 유럽의 경우 유럽 공동체 위원회에서 발간한 지침서의 개념을 보자면 "성희롱이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 혹은 직장 내 남녀의 존엄성의 영향을 미치는 성차별적 행위" 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Rubenstein, 1993).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1994)는 '노동의 현장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함으로써 그 상대방에게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 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공미혜(1995)는 '노동현장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상대방 여성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 등의 정신적 피해를

주며 작업환경을 방해하는 것'으로, 김양희(1995)는 '성을 소재로 상대의 인권을 침해하는 언행으로, 불필요하며 불쾌한 육체적 접촉, 용모에 대한 성적언급이나 농담을 비롯하여 노골적인 성적 유혹과 성적 공격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유해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생산성 저하는 물론 이동이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야기시켜 직장에서의 여성의 평등권을 제약하는 행위'로, 장필화 등(1994)은 '직장에서 일어나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성희롱에 대한 정의에 앞서 當該行爲가 우선 성적인 성질이 있는지의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언행으로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는 행위인지, 當該行爲가 근로관계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근로관계와는 인과관계가 없어도 當該行爲가 심각할 정도로 의도적이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성희롱의 법적 기준이 있다. 즉, 성희롱이란 또는 성과 관련된 當該行爲가 상대방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에 또는 불쾌한 근로환경을 만들기에 충분히 의미있는 경우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제시된 성희롱 개념은 대체로 미국과 일본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나영숙, 1994).

학교 성희롱에 대한 규정은 EEOC(1993)에서 대상형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는데 대상형 성희롱은 학교 고용인(직원, 교사, 교수 등)이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이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행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게 하는 경우에 발생하며, 환경형 성희롱은 환영받지 못하는 성적 행위가 매우 심하고, 지속적이고, 또는 만연되어 있어서 학생의 학교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거나 이들로부터 이익을 얻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설명에서 보듯이 성희롱은 대부분 직장에서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정의하고 있다.

2. 성희롱의 유형과 행위 양상

성희롱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른 그 유형이 여러 각도로 정해질 수 있다. 성희롱의 대응양식에 따라 성희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고찰함으로써 그 대응 양식의 차이를 검토하고 있다. Tangri, Burt, Johnson(1982)은 성희롱에 대해서 생물학적, 조직적, 사회 문화적 모델 세가지로 유형화하면서 각각

의 유형에 따라 대응 양식이 달라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생물학적 모델은 인간관계에서 이성애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혹은 남성의 더 강한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유형을 말한다. 두 번째의 조직적인 모델의 경우, 성희롱이 발생하는 원인을 수직적인 위계구조로 파악하는 피해자들은 이에 대한 저항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항 반응을 하게 된다면 그들은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승진탈락, 인사 이동, 업무 방해)을 받기 때문이다. 세 번째, 사회 문화적 모델은 성희롱의 발생 원인을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 된 권력 때문으로 본다. 즉 남성과 여성은 다른 성규범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사회 문화적 구조에 의해서 조장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모델에 의하면 가해자는 남성으로 된다는 것이다.

신혜숙(1996)은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 유형을 가해자 책임형, 예방적 대처형, 사회구조 책임형, 피해자 책임형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미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의 지침(EEOC Guidelines, 1993)에서는 성희롱의 유형을 보복형 성희롱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¹⁾과 환경형 성희롱 (Hostile Environment Sexual Harassment)으로 구별하였다. 보복형 성희롱은 근로자로 하여금 상관의 성적요구에 순응하는 것 또는 채용이나 지속적인 고용, 승진기회 등을 상실하는 것 중에서 양자택일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이며, 환경형 성희롱은 전형적으로 근로현장에 스며들어 근로자인 피해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하거나 불유쾌하게 하는 성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의 유형에는 그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상사 주도형과 동료주도형으로 나누어지기도 하고(신성자, 1993), 고용상의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따라 보복형과 환경형으로 나뉘어 지기도 한다. 보복형 성희롱이란 바라지 않는 성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그 수용 여부가 피해자의 고용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환경형은 성희롱으로 인하여 직장의 분위기가 불편하고 신경이 거슬러서 적대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공미혜(1993)는 시각적, 언어적, 신체적으로 성희롱을 간단히 유형화하였으며, 비언어적 행위의 성희롱은 그것을 묵인했을 때 그 정도가 심한 성희롱의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고 육체적인 행위의 경우 가벼운 신체적 접근에서부터 육체적 추행, 강제적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였다.

장필화 등(1994)은 성희롱의 유형을 고용조건형과 노동환경형으로 구분하였다. 고용조건형은 성적행위에 대한 수용여부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한 개인의 고용에 대한 대가나 조건인 경우이며, 노동환경형은 성적행위가 개인의 업무능률을 저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업무환경을 형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아니면 그 행위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기준이 되는 것은 성희롱의 구체적인 언행인데 Fitzgerald(1991)는 직장 여성들의 27가지 성희롱의 사건들을 기준으로 하여 5가지로 성희롱을 유형화하고 있다. 그 다섯가지 유형은 사회적 성에 근거한 지분 거림형(gender harassment), 성적 유혹형(sexual seduction), 뇌물형(bribery), 위협형(threat), 성행위 요구형(sexual imposition)등이다.

'성적행위'와 관련된 성희롱의 유형은 단지 응시하는 행위에서부터 강간까지의 행위를 모두 포괄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시각적 행위로서 결눈질하기, 응시하기, 둘째, 언어적 행위로서 외설적인 언급이나 암시, 농담, 셋째, 육체적 행위로서 건드리기, 애무, 강간 등, 넷째, 근로현장에서 음란한 사진의 전시나 낙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나 편지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경우, 다섯째, 성적인 봉사의 요구 예컨대 과도한 서비스나 애교의 요구, 술자리에서의 서비스 요구 등을 들 수 있다(Friedman, 1992).

William Petrocelli 와 Babra kate Repa(1992)는 성희롱의 행위양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사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야만 한다고 믿게 된 근로자도 성적으로 희롱 당하는 것이며, 동료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공격적이고 성과 관련된 농담을 하거나 근로현장의 벽에 여자의 나체 사진을 걸어두는 것, 직장동료가 여자 동료들을 훑어지게 바라보고 가는 길을 막아서고 붙잡으려 하는 것 등 공격적인 성적 풍자에서부터 육체적 부딪침, 성적인 농담에서 강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하였다.

1) 'Quid Pro Quo'는 라틴어로, 직역하면 '이것에 대해 저것'으로, '내 요구에 응하라. 그러면 보상을 주마. 그러나 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라는 뜻이다.

ILO(1992)가 제기하는 성희롱의 유형은 원치 않는 성적(sexual) 접근과 사회적 성(gender)에 의한 차별을 행하는 유형으로 크게 분류하고 전자를 다시 육체적인 행위(불필요한 터치, 애무, 육체적 추행, 강압적인 성관계), 언어적인 행위(불쾌한 장난, 암시, 음란한 평가), 비언어적인 행위(포르노그래피, 성적인 암시의 사진의 전시, 응시, 휘파람, 성적인 것을 제안하는 몸짓)등으로 다시 세분한다.

시각적, 언어적, 육체적 행위와 음란물의 전시나 낙서가 가해자 일방의 성적 행위라면, '성별에 기반한 행위'란 성별로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 뜨리거나 비웃는 행위 혹은 위협적이거나 육체적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외모나 옷에 대한 평가는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는 아니지만 성별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위가 불쾌한 느낌을 주거나 업무에 영향을 준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또는 명백히 성차별적인 발언("여자가 하는 일은...", "여자 주제에..." 등)이나 여성 비하적인 발언(욕설이나 반말 등), 고정관념적인 성별분담(차대접이나 청소의 요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나 처리 등)의 강요등도 성에 기반한 성희롱행위이다(장필화 외 4인, 1994).

서울대 조교 성희롱사건의 일차 판결이후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 중의 하나가 성희롱의 적용범위이다. 심지어는 여성을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겠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였다. 성희롱은 주관적인 개념이므로 똑같은 행위라도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수용자의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즉,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성희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위해서 성희롱 목록을 만드는 일은 엄격하게 보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예시는 할 수 있겠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는 「침묵에서 외침으로」라는 자료집에서 여러 가지 성희롱을 예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쾌한 성적농담, 폭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품평, 직장에 누드나 포르노그래픽한 그림을 부착하는 것, 성적 언어를 쓴 불쾌한 쪽지를 보내거나 외설적인 글/그림을 보게하는 행위, 술좌석에 무리하게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것, 채용 등의 조건으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 음란전화,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몸짓 등을 포함한다.

노동부(1999)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여성특별위원회의 남녀차별금지기준(제17조)을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예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행위 -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②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④ 기타 추행, 강간미수 등.

(2) 언어적 행위 - ①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②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⑥ 기타 성생활이나 사생활에 대하여 캐묻는 것, 성적으로 비꼬는 말을 하여 모욕하는 것, 여직원들을 꽃에 비유하는 것,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대하여 조롱하거나 비꼬는 것, 폭언과 욕설을 하는 것 등.

(3) 시각적 행위 - ①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②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③ 기타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 주거나 외설적인 책이나 글을 보게 하는 것,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것 등.

(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등 - 원하지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 등²⁾으로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동을 예시하는 것은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김양희, 1995).

3. 성희롱의 원인

성희롱의 원인으로 성체계의 이중구조, 여성과 남성애

2) 성역할에 기반한 성희롱 - 업무와 관계없이 여성에게는 가사일과 육아를, 남성에게는 가장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여성을 '할머니', '아줌마', '○○야'라고 부르거나, 청소, 잔심부름, 짐나르기 등을 한 성에게만 강요하는 것 등을 말한다.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것도 성희롱으로 취급하고 있다.

게 달리 적용되는 가부장적 성규범, 성간 권력의 불균형, 그리고 자본주의에 의한 성상품화가 함께 작용하여 여성에게는 은폐된 성의 가치관을, 남성에게는 과장된 성의 가치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즉, 우리사회의 가부장적 성문화는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성적으로 수동적인 존재이므로 여성이 남성에게 말을 걸고 자극적인 옷을 입거나 밤에 혼자 외출하는 것은 묵시적으로 남성에게 성충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즉 이는 성희롱 문제가 여성 자신의 탓으로 해석해 버릴 수 있는 견해를 반영한다(공미혜, 1993).

황은자(1989)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성에 관한 인식적 측면에서 남녀의 성은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남성의 성욕은 충동적이고 강한 것으로 보는 반면 여성의 성욕은 스스로 통제가 가능하거나 혹은 무욕적인 존재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남성의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는 공격적·경쟁적인 존재로 키우고 여성은 정절을 지켜야 하는 순종적·수동적인 존재로 키우는 성별 사회화과정 및 남녀 비대칭적 성문화를 통해 남성은 공격자·가해자로서, 여성은 피해자로서의 기질을 갖게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희롱의 가해자 측면인 남성의 성적 표현은 오히려 지나치면 지나칠수록 남성다움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성이 구성되고 사회화되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성정체감(gender identity)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남성다운 남성은 적극적이고 독립적이고 강인함을 가져야 한다고 사회화되는 반면 여성다운은 수동성· 의존성·복종성을 포함한 남성을 보호자로 구해야 한다고 사회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적 성역할은 남녀관계에서 여성을 피해자로 만들기에 가능하며 결국 성희롱에 대한 가해자인 남성에게 대해 허용적인 태도가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성희롱에 대한 합리화하는 시각이 높아져 여성을 성희롱의 피해자로 만드는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구수경, 1993; 공미혜, 1993; 김선영, 1989; 김태련, 1990; 심영희, 1991).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성은 남성주도적인 사회관계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성문제는 우리사회에서 남녀간의 가장 뿌리깊은 지배-종속의 관계를 보여주는 정치적 관계임에 틀림이 없다(장필화와 조형, 1991). 성희롱이야말로 권력관계에 길들여진 남성이 권력이 없는 여성의 기분이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못하며 성적 대상으

로 여기는 왜곡된 성문화에 기인한다. 성희롱은 결국 여성이 남성보다 힘없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의 상당부분이 상사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바로 직장의 위계구조로 인한 남녀간 힘의 불평등이 근본적인 원인임을 증명한다. 성희롱은 성간 불평등이 원인이며, 성희롱은 다시 여성의 무력함과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에게만 월경, 피임 등의 순결교육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교육과 남학생에게는 이렇다할 성교육(성윤리교육)이 없는 것(구수경, 1993) 등을 들 수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여성의 순결에 가치를 두는 것은 공통적 현상이겠으나,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순결교육은 남녀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하며 '고추'가 일종의 훈장처럼 인식되는 우리사회의 남아선호 경향이 이러한 성희롱 현상을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시사저널, 1996).

이중적인 성윤리 또한 성희롱의 원인으로, 여성에게는 출산을 빌미로 혈통의 순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절을 미화하고 성을 통제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성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여성과 같이 구제할 수 없다는 성본능론으로 남성의 성적 방종을 부추겨왔다. 이렇듯 남녀의 성에 대한 이중기준으로 인해 여성은 성희롱을 경험해도 순결을 잃지 않는 정도라면 아무리 불쾌해도 참아내야 할 문제였던 것이다. 반면 남성에게 있어 성희롱은 직장생활의 활력소 정도로 인식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 성희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이다(최은순, 1994).

성희롱 문제는 오늘날 대중매체의 빠른 보급으로 미처 올바른 성의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등을 통한 자극적이고 개방적인 성 정보를 통해 성도덕이 문란해짐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할 수 있기에 이는 성윤리와 성규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요구된다(신혜숙, 1996).

이밖에도 급속하며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가치관의 부재, 체계적인 성교육의 부재, 한국특유의 접대문화와 기생관광육성사업 등 향락문화, 권위주의적인 사회의 과도한 긴장을 벗어나기 위한 도피적인 성페락주의와 남성 중심 조직의 잘못된 직장문화 등을 들 수 있다.

4. 청소년 성희롱의 실태 및 예방

성희롱에 대한 개념이나 실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나영숙, 1994: 장필화 등, 1994: 조정아와 조혜순, 1991: 한국 여성 민우회, 1994: 이성은, 1995: 공미혜, 1995: 김양희, 1995: 신성자, 1993),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1편(신혜숙, 1996)이 있었다.

외국의 경우에도 직장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청소년 성희롱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 발표되었다.(Toupey M Luft, 1997).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Strauss(1988)의 연구에서 33~60%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주요 가해자는 친구였으며, 성희롱의 행위양상은 대부분 성적인 응시 또는 성적인 행위였고,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들은 75%가 분노를 느꼈고, 30%가 혼란스러웠다고 보고하였다.

Stein 등(1993)의 연구에서 가장 빈번한 성희롱의 양상은 '성적인 묘사, 몸짓 또는 응시를 보내는 행위'가 89%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적으로 접촉하거나 겨냥하는 행위'가 83%로 나타났다.

LeBlanc(1993)은 연구에서 미국의 학교 현장에서 성희롱 경험이 92%가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하였으며, 미국대학여성협회(AAUW, 1993)는 8~11학년 남녀학생 1632명에 대한 조사에서 85%의 여학생과 76%의 남학생이 성희롱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31%가 종종 경험한다고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의 한 연구결과에서 54%의 여성이 이미 16세에 도달되기 전에 원치않는 성희롱 경험을 가졌다고 보고하였다(Changing the Landscape, 1993).

Roscoe 등(1994)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이 빈번하다고 발표했으며, Larkin(1994)는 10대 여성들의 성희롱이 높은 발생빈도를 기술하고, 그의 보고서에서 거의 매일 성적인 말대꾸, 원치않는 신체접촉, 포르노 그림의 제시 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Watkinson(1995)은 10대 소녀들이 성희롱 경험 후 첫 번째 나타내는 정신적 반응은 자존심의 저하와 우울증이라 하였고, Bryant(1993)는 교육현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후 나타내는 부정적 반응은 집중력의 저하, 불안정, 성적 저하 현상 등이며, 그 이후 그 여학생이 그러한 경우에 다시 직면했을 때 자신감을 잃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희롱을 경험한 사춘기 소녀들은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 3분야에서 영향을 받는다. 성희롱을 경험한 사춘기 소녀들은 첫째, 교육적 영향으로 학교에 가는 것

에 대해 두려움을 보고했으며 그것은 출석율과 관련된다 고 하였다. 성희롱하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학습을 방해하며, 남, 녀친구와의 인간관계에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AAUW, 1993: Larkin, 1994). AAUW(1993) 연구에서 성희롱을 당한 소녀 3명 중 1명은 행복한 남녀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약 20%가 자신이 인기가 없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Larkin(1994)의 연구에서 성희롱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수업이나 토론활동에서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관심을 돌리고, 자신의 사고나 생각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일부 소녀들은 결석하는 것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또 일부소녀들은 성희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학을 간다고 하였다(Yaffe, 1995). 둘째, 심리적 영향으로 성희롱을 당하는 대학생이나 직장여성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비슷한데, 자신감이나 자존심이 저하되고, 우울증이 나타나며, 불안이 심각해진다고 하였다(AAUW, 1993: Larkin, 1994: Yaffe, 1995). 그리고 AAUW연구에서는 많은 소녀들이 자신들이 성희롱 당하는 것이 성(gender)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셋째, 성희롱을 경험한 사춘기 소녀들의 신체적 영향으로 두통, 식욕결핍, 불면증, 체중증가 또는 체중감소, 호흡기계와 비호기계 감염의 증가 등을 보였다(Charney와 Russell, 1994). Backhouse와 Cohen(1978)은 '성희롱 증후군'으로 오심, 두통, 근육경련, 불면증, 고혈압 등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성희롱에 관한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신혜숙(1996)의 연구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상에서와 같이 외국에서의 청소년 성희롱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 여러 편이 있었으며, 청소년이 성희롱 경험 후 교육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후유증을 갖게 됨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및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각 학년 100명

씩 임의 표집하여 각 학년 100명 남학생 300명, 여학생 300명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문헌을 근거로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간호학교수 4명, 양호교사 2명으로부터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 받아 수정보완 하였다. 설문지의 내용도 일반적 특성 7문항, 성희롱에 대한 태도 23문항, 성희롱의 원인 및 예방대책에 대한 5문항 성희롱 경험 후 느낌 7문항 총 46문항이다.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신혜숙(1996)의 논문을 토대로 본 연구에 목적에 적합토록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5점 척도 문항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고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처리하였다. 성희롱에 대한 태도유형은 가해자 책임형 5문항, 예방적 대처형 6문항, 사회구조 책임형 7문항, 피해자 책임형 5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alpha는 .69이었다.

4. 자료수집과 방법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설문지 조사를 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양호교사에게 의뢰하여 양호교사가 학생들에게 설명한 다음 학생 자신이 직접 설문지를 읽고 답하여 수집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600부 중 584부(97.3%)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자료 중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어 자료처리가

본관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573부(98.1%)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PC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희롱 경험과 관련 제특성은 성별에 따라 빈도, 백분율로 산출하였고, 성별에 따른 성희롱에 대한 태도와 성희롱 경험 후 느낌은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278명(48.5%), 여학생이 295명(51.5%)으로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70명(29.7%), 2학년이 159명(27.7%), 3학년이 244명(42.6%)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59.3%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40.7%가 종교가 없었으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상황은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경우가 551명(96.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직 25.3%, 전문직 18.3%, 상업 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 직업은 전업 주부 58.5%, 상업 14.1%, 기타 8.7% 순이었다.

가정 경제수준은 보통이 87.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교성적은 중간이 59.2%로 과반수 이상이었고, 상, 하는 비슷하게 나타났다(표 1 참조).

<표 1> 성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유형

(N=573)

일반적 특성	구 분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학 년	1학년	70(25.2)	100(33.9)	170(29.7)
	2학년	65(23.4)	94(31.9)	159(27.7)
	3학년	143(51.4)	101(34.2)	244(42.6)
종 교	무교	123(44.2)	110(37.3)	233(40.7)
	기독교	56(20.1)	83(28.1)	139(24.3)
	불교	60(21.6)	73(24.7)	133(23.2)
	천주교	28(10.1)	25(8.5)	53(9.2)
	원불교	1(0.4)	0(0.0)	1(0.2)
	기타	10(3.6)	4(1.4)	14(2.4)

〈표 1〉 성별 성희롱에 대한 태도 유형 (계속)

일반적 특성	구분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가족상황	부모님이 모두 계심	266(95.7)	285(96.6)	551(96.2)
	아버지만 계심	5(1.8)	1(0.3)	6(1.0)
	어머니만 계심	1(0.4)	8(2.7)	9(1.6)
	두분 모두 안 계심	5(1.8)	1(0.3)	6(1.0)
	기타	1(0.4)	0(0.0)	1(0.2)
아버지의 직업	무직	16(5.8)	15(5.1)	31(5.4)
	전문직	61(21.9)	44(14.9)	105(18.3)
	사무직	61(21.9)	84(28.5)	145(25.3)
	사업	35(12.6)	41(13.9)	76(13.3)
	상업	42(15.1)	59(20.0)	101(17.6)
	단순노동직	8(2.9)	5(1.7)	13(2.3)
	기타	53(19.1)	47(15.9)	100(17.5)
	무응답	2(0.7)	0(0.0)	2(0.3)
어머니의 직업	전업주부	170(61.2)	165(55.9)	335(58.5)
	전문직	16(5.8)	25(8.5)	41(7.2)
	사무직	13(4.7)	21(7.1)	34(5.9)
	사업	7(2.5)	9(3.1)	16(2.8)
	상업	38(13.7)	43(14.6)	81(14.1)
	단순노동직	3(1.1)	10(3.4)	13(2.3)
	기타	28(10.1)	22(7.5)	50(8.7)
	무응답	3(1.1)	0(0.0)	3(0.5)
가정경제 수준	잘사는 편	17(6.1)	9(3.1)	26(4.5)
	보통	228(82.0)	271(91.9)	499(87.1)
	어려운 편	33(11.9)	15(5.1)	48(8.4)
학교 성적	상	67(24.1)	43(14.6)	110(19.2)
	중	149(53.6)	190(64.4)	339(59.2)
	하	62(22.3)	62(21.0)	124(21.6)
계	278(48.5)	295(51.5)	573(100)	

2. 성희롱에 대한 태도 유형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 군에서 사회구조 책임형과 피해자 책임형이, 여학생 군에서는 가해자 책임형과 예방적 책임형이 유의한 차이를 보여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은 권한이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사이에서 성희롱이 더 빈번하며, 권력이 있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을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피해사실을 제 3자에게 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을 받

는 피해자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지나친 자기노출이 성희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여학생들은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인 경우가 많으며 가해자인 남성의 의식 및 사고의 전환이 예방을 위해 필요하며 또한 성희롱은 개인의 노력이나 변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한 것으로 당당한 자기 주장과 언변으로 대처해야 하며, 성희롱을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남녀 고등학생들은 예방적 대처형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성희롱에 대한 태도 유형

	점수범위 (최고 - 최저)	남학생 M(SD)	여학생 M(SD)	전체 M(SD)	t-test	p-value
가해자 책임형	5 - 25	15.52(3.48)	17.06(2.37)	16.31(3.06)	-6.13	.000
예방적 대처형	6 - 30	20.81(4.54)	23.18(2.91)	22.03(3.97)	-7.41	.000
사회구조 책임형	7 - 35	23.74(4.28)	22.34(2.89)	23.12(3.68)	3.92	.000
피해자 책임형	5 - 25	17.73(3.23)	15.53(2.39)	16.68(2.88)	4.60	.000
계		76.94(3.42)	78.72(3.42)	77.85(3.38)	-2.26	0.024

전체적인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 군과 여학생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2.26, p=0.024$).
(표 2 참조)

3. 대상자가 본 성희롱 발생의 주요원인

남녀 고등학생들은 성희롱 발생의 1순위 주요원인은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성적자극물(도색잡지, 음란비디오, TV프로 등)의 영향' 순으로 나타냈으며, 성희롱 발생의 2순위 주요원인은 '남성의 무절제한 성충동 및 성충동 해소의 미숙함',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본 성희롱 발생의 1순위 주요원인은 '성적 자극물(도색잡지, 음란비디오, TV프로 등)의 영향', '성희롱 예방교육의 부재',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이었으며, 여학생이 본 성희롱 발생의 1순위 주요원인은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가 높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남녀 고등학생들은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를 성희롱 발생의 제 1순위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역할 분리와 이에 기반한 가부장적 권력, 즉 일상적 권력의 이중구조에 의해 성희롱이 발생한다는 의견과 일치

한다(심영희, 1994; 공미혜, 1993; 이영자, 1991). 따라서 성희롱의 문제해결은 개인적 수준의 해결보다 근본적인 성문화의 남성 중심성을 직시하고 이를 비판, 변화시키려는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정대현(1988)의 언급처럼 성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있는 성차별 구조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대상자가 본 성희롱의 예방대책

전체 남녀고등학생들이 본 성희롱의 1순위 예방대책은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체계 마련',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의 순이었으며, 성희롱의 2순위 예방대책은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 체계 마련',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 '여성의 적절한 자기관리 및 자신을 보호하는 처세술 습득'의 순이었다.

남학생들이 본 성희롱의 1순위 예방 대책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성적 자극물(음란비디오 등)의 확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향락산업의 규제',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 체계 마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본 성희롱의 1순위 예방대책은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 체계 마련',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남녀 고등학생들이 본 1, 2순위 예방대책은 '성희롱

〈표 3〉 대상자가 본 성희롱 발생의 주요원인

의 견	1순위			2순위		
	남 N(%)	녀 N(%)	전체 N(%)	남 N(%)	녀 N(%)	전체 N(%)
성희롱 예방 교육의 부재	54(19.4)	27(9.2)	81(14.1)	26(9.4)	22(7.5)	48(8.4)
성개방과 물질만능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사회적 풍토	24(8.6)	25(8.5)	49(8.6)	24(8.6)	29(9.8)	53(9.2)
성적 자극물(도색잡지, 음란비디오, TV프로 등)의 영향	58(20.9)	31(10.5)	89(15.5)	46(16.5)	27(9.2)	73(12.7)
여성억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33(11.9)	72(24.4)	105(18.3)	26(9.4)	59(20.0)	85(14.8)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51(18.3)	79(26.8)	130(22.7)	45(16.2)	46(15.6)	91(15.9)
성희롱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사회적 무관심	4(1.4)	28(9.5)	32(5.6)	19(6.8)	34(11.5)	53(9.2)
과다한 신체적 노출이나 정숙하지 못한 여성 자신의 문제	29(10.4)	2(0.7)	31(5.4)	36(12.9)	21(7.1)	57(9.9)
남성의 무절제한 성충동 및 성충동해소의 미숙함	17(6.1)	31(10.5)	48(8.4)	44(15.8)	56(19.0)	100(17.5)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많아 졌으므로	2(0.7)	0(0.00)	2(0.3)	5(1.8)	1(0.3)	6(1.0)
기타	6(2.2)	0(0.00)	6(1.0)	7(2.5)	0(0.00)	7(1.2)
계	278(100)	295(100)	573(100)	278(100)	295(100)	573(100)

〈표 4〉 대상자가 본 성희롱 예방대책

(N=573)

의 건	1순위			2순위		
	남학생	여학생	전체	남학생	여학생	전체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78(28.1)	47(15.9)	125(21.8)	39(14.0)	26(8.8)	65(11.3)
성적 자극물(음란비디오 등)의 확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향락산업의 규제	43(15.5)	30(10.2)	73(12.7)	33(11.9)	27(9.2)	60(10.5)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 체계 마련	39(14.0)	112(38.0)	151(26.4)	40(14.4)	73(24.7)	113(19.7)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	27(9.7)	49(16.6)	76(13.3)	29(10.4)	50(16.9)	79(13.8)
방법제도의 부활 및 방법대원의 증강과 방법시간 대의 연장	2(0.7)	1(0.3)	3(0.5)	11(4.0)	8(2.7)	19(3.3)
성희롱 추방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	19(6.8)	21(7.1)	40(7.0)	30(10.8)	31(10.5)	61(10.6)
페락위주의 사회적 풍토 개선	25(9.0)	14(4.7)	39(6.8)	24(8.6)	24(8.1)	48(8.4)
청소년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처벌을 위한 학교 내·외 전담기구 설치	15(5.4)	7(2.4)	22(3.8)	30(10.8)	14(4.7)	44(7.7)
여성의 적절한 자기관리 및 자신을 보호하는 처 세술 습득	22(7.9)	13(4.4)	35(6.1)	32(11.5)	40(13.6)	72(12.6)
기타	8(2.9)	1(0.3)	9(1.6)	10(3.6)	2(0.7)	12(2.1)
계	278(100.0)	295(100.0)	573(100.0)	278(100.0)	295(100.0)	573(100.0)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법적체계마련'이 첫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서구에서는 성희롱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하였고(조정아와 조혜순, 1991: 장필화 등, 1994),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의 예방대책을 위해 법적 대응 장치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신문 기사(중앙일보, 1996)에 이어, 1992년부터 직장내 성희롱을 문제해결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남녀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므로써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청소년이 겪는 성희롱에 대한 어떤 사회적 예방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로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를 들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을 인간의 존엄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과정에서 성교육이 필수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최영애, 1997), 청소년기에 남녀 역할에 대한 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박현이(1995)의 결과와 일치한다.

세 번째로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구조의 변화'는 앞서 지적했듯이 성희롱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변화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주체성을 억누르는 이중적 성규범에 의한 성차별적 교육이 개선되어야 하며, 성희롱의 예방 및 대처방안은 장기적으로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한 장필화 등(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양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성차별에 근거한 성분리 교육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겠다.

5. 성희롱 경험에 관련된 제특성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209명을 대상으로 경험한 성희롱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성희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성희롱 경험시 나이는 만 16세 이후가 122명(58.4%)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이 중, 고등학교 시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의 나이는 10대가 112명(53.6%)로 가장 높았고, 남, 여 학생 모두 10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로 같은 10대가 가해자였다. AAUW(1993) 연구에서 대부분이 학생들 서로간의 성희롱이였으며, Corbett 등(1993)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때 50%가 친구간의 성희롱 경험을 보고하였다.

성희롱 가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 85명(40.7%)로 가장 높았고 친구인 경우가 78명(37.3%)로 나타나 많은 경우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친구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친구가 54명(61.4%), 여학생의 경우 모르는 사람 72명(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당한 후에 피해자들은 남, 여 학생 모두 친구에게 가장 많이 상의했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63명(30.1%)로 친구에게 상의하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AAUW(1993)연구에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 이야기하는 대상이 친구가 62%로 가장 높았고, 아무에게도 전

〈표 5〉 성희롱 경험과 관련된 제특성

특성	구분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성희롱 경험시 나이	만 0~6세	1(1.1)	2(1.7)	3(1.4)
	만 7~12세	2(2.3)	16(13.2)	18(8.6)
	만 13~15세	19(21.6)	46(38.0)	65(31.1)
	만16세 이후	66(75.0)	56(46.3)	122(58.4)
	무응답	0(0.0)	1(0.8)	1(0.5)
성희롱 가해자의 나이	10대	66(75.0)	46(38.0)	112(53.6)
	20대	5(5.7)	19(15.7)	24(11.5)
	30대	3(3.4)	15(12.4)	18(8.6)
	40대	6(6.8)	12(9.9)	18(8.6)
	50대	1(1.1)	3(2.5)	3(1.4)
	60대	7(8.0)	0(0.0)	1(0.5)
	모른다	0(0.0)	26(21.5)	33(15.8)
성희롱 가해자의 성별	여자	33(37.5)	2(1.7)	35(16.7)
	남자	39(44.3)	108(89.3)	147(70.3)
	남녀모두(있었다)	15(17.0)	11(9.1)	26(12.4)
	모른다	1(1.1)	0(0.0)	1(0.5)
성희롱가해자와의 관계	모르는 사람	13(14.8)	72(59.5)	85(40.7)
	얼굴만 알고 있었던 정도	6(6.8)	9(7.4)	15(7.2)
	친구	54(61.4)	24(19.8)	78(37.3)
	부모님의 친구	0(0.0)	1(0.8)	1(0.5)
	사촌	2(2.3)	0(0.0)	2(1.0)
	권위를 가진 사람(선생님 등)	1(1.1)	11(9.1)	12(5.7)
	아버지	2(2.3)	1(0.0)	2(1.0)
	계모	2(2.3)	0(0.0)	2(1.0)
	기타	7(8.0)	4(5.3)	11(5.3)
모른다	1(1.1)	0(0.0)	1(0.5)	
성희롱을 당한 후의 피해자의 행동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31(35.2)	32(26.4)	63(30.1)
	어머니	2(2.3)	21(17.4)	23(11.0)
	아버지	2(2.3)	0(0.0)	2(1.0)
	형제/자매	0(0.0)	4(3.3)	4(1.9)
	친구	51(58.0)	63(52.1)	114(54.5)
	기타	2(2.3)	1(0.8)	3(1.4)
	계	88(100)	121(100)	209(100)

혀 이야기하지 않는 학생들도 23%나 되었으며, 담임선생님에게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

대상자의 성희롱 경험자는 전체 대상자 573명 중 209명이 한 건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36.5%를 차지하였다. 남학생 조사대상자 총 278명 중 88명(31.7%), 여학생 조사대상자 295명 중 121명(41.0%)이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하였으며, 총 경험건수는 614건이며 그 중 남학생이 299건(48.7%), 여학생이 315건(51.3%)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은 크게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육체적 성희롱은 248건(40.5%), 언어적 성희롱은 226건(36.7%), 시각적 성희롱이 139건(22.6%)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경험한 성희롱의 내용은 '성기를 만지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겨안기 등의 신체 접촉 행위', '성적인 방식으로 만지는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경험한 성희롱의 내용은 '전화로 음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본 연구에서의 성희롱 경험은 36.5%의 대상자가 응

<표 6> 경험한 성희롱 내용

(단위 : 건수)

구 분	문 항	남학생 N(%)	여학생 N(%)	전체 N(%)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35(11.7)	31(9.8)	66(10.8)
	성적인 방식으로 만지는 행위(예 : 귀 또는 볼을 쓰다듬는다)	29(9.7)	31(9.8)	60(9.8)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27(9.0)	35(11.1)	62(10.1)
	성기를 만지는 행위	40(13.4)	6(1.9)	46(7.5)
	안마나 애무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11(3.7)	3(1.0)	14(2.3)
소계		142(47.5)	106(33.7)	248(40.5)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39(13.1)	41(13.0)	80(13.0)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놀림을 하는 행위	17(5.7)	11(3.5)	28(4.6)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23(7.7)	12(3.8)	35(5.7)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6(2.0)	1(0.3)	7(1.0)
	전화로 음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행위	12(4.0)	45(14.3)	57(9.2)
식사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3(1.0)	16(5.1)	19(3.1)	
소계		100(33.5)	126(40.0)	226(36.7)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23(7.7)	17(5.4)	40(6.5)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12(4.0)	28(8.9)	40(6.5)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21(7.0)	38(12.1)	59(9.6)
소계		56(8.7)	83(26.3)	139(22.6)
기타		1(0.3)	0(0.0)	1(0.2)
계		299(100)	315(100)	614(100)

답하였는데, 미국의 학교현장에서는 92%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LeBlanc, 1993), 한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85%, 남학생의 76%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결과(AAUW, 1993)보다는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미국대학여성협회(AAUW, 1993)연구에서 성희롱 경험자 중 31% 여학생이, 18% 남학생들이 종종 경험한다고 하였고, 76% 여학생들이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한 반면 56% 남학생들이 언어적 성희롱을 경험하였다고 했다. 경험자들 중 높은 빈도의 학생들이 경험했다고 성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데 65%의 여학생이, 42% 남학생이 경험했다고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적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희롱을 당한 후 느낌에 대한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느낌은 '놀랐다'의 문항인 반면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느낌은 '즐거웠다', '흥미로웠다'의 문항이었다(표 7 참조).

Strauss(1988) 연구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학생들에 75%가 분노를 느꼈고, 30%가 혼란스러웠다고 보고하였고, 아동 성학대 경험이 있는 여대생에 대한 김민정(1997)연구에서 두려움/ 충격/ 놀라움을 많이 느낀 응답자는 각각 31.9%, 47.0%이었고, 죄의식/ 수치심을 많이 느낀 응답자는 각각 14.5%, 24.6%이며, 흥미/

<표 7> 성희롱 경험 후 느낌

문 항	남학생	여학생	t-test	p-value
	M(SD)	M(SD)		
두려웠다	2.16(1.44)	2.96(1.50)	-3.90	0.000
충격을 받았다	2.41(1.47)	3.46(1.42)	-5.21	0.000
놀랐다	2.76(1.55)	3.65(1.38)	-4.39	0.000
흥미로웠다	2.91(1.59)	1.50(0.97)	7.924	0.000
즐거웠다	2.73(1.67)	1.27(0.87)	8.18	0.000
죄의식을 느꼈다	1.85(1.25)	1.71(1.02)	0.90	0.368
수치스러웠다	2.15(1.49)	2.79(1.55)	-3.02	0.003

즐거움을 많이 느낀 응답자는 각각 0.9%였다고 보고하였다.

V.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남녀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희롱에 대한 태도 및 경험을 성별로 비교하여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00년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 간이었으며, 일 지역에 소재하는 2개 인문계 남녀고등학교 2개교를 임의 표집하여 학년 당 100명, 총 600명을 대상으로 47문항의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총 600부 중 584부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설문지 중 자료가 미비한 11부를 제외한 573명을 대상으로, SPSS-PC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남녀 고등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태도는 남학생 군에서 사회구조 책임형과 피해자 책임형이 여학생 군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여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여학생 군은 가해자 책임형과 예방적 대처형이 남학생 군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여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성희롱에 대한 태도에서 남학생 군과 여학생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 = -2.26, p = 0.024$).

2. 남녀 고등학생들은 성희롱 발생의 1순위 주요원인은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 '성적 자극물(도색잡지, 음란비디오, TV프로 등)의 영향'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본 성희롱 발생의 1순위 주요원인은 '성적 자극물(도색잡지, 음란비디오, TV프로 등)의 영향', '성희롱 예방교육의 부재',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본 성희롱 발생의 1순위 주요원인은 '여성을 성상대로 보는 남성의 잘못된 인식', '여성 억압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와 그로 인한 왜곡된 성문화'가 높게 나타났다.

3. 남녀고등학생들이 본 성희롱의 1순위 예방대책은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체계 마련',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의 순이었으며, 남학생들이

본 성희롱의 1순위 예방 대책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 '성적 자극물(음란비디오 등)의 확산에 대한 규제 강화 및 향락산업의 규제',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 체계 마련'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본 성희롱의 1순위 예방대책은 '성희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의 강화 및 법적 체계 마련', '남녀간의 불평등과 성차별 구조의 변화', '청소년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성희롱 경험자는 전체 대상자 573명 중 209명이 한 건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으며 36.5%를 차지하였다. 남학생 조사 대상자 총 남학생 278명 중 88명(31.7%), 여학생 조사 대상자 총 295명 중 121명(41.0%)이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총 경험 건수는 614건이며 그 중 남학생이 299건(48.7%), 여학생이 315건(51.3%)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양상은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육체적 성희롱은 248건(40.5%), 언어적 성희롱은 226건(36.7%), 시각적 성희롱이 139건(22.6%)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경험한 성희롱의 내용은 '성기를 만지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 접촉 행위'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경험한 성희롱의 내용은 '전화로 음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행위',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5. 성희롱 경험과 관련된 제 특성에서 성희롱 경험시 나이는 만 16세 이후가 122명(58.4%)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이 중, 고등학교 시절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가해자의 나이는 10대가 112명(53.6%)로 가장 높았고, 남, 여 학생 모두 10대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주로 같은 10대가 가해자였다.

성희롱 가해자와의 관계는 모르는 사람이 85명(40.7%)로 가장 높았고 친구인 경우가 78명(37.3%)로 나타나 많은 경우가 모르는 사람이거나 친구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친구가 54명(61.4%), 여학생의 경우 모르는 사람 72명(5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 당한 후에 피해자들은 남, 녀 학생 모두 친구에게 가장 많이 상의했으며(114명, 54.4%),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경우가 63명(30.1%)로 대부분이 친구에게

상의하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당한 후 느낌에 대한 조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느낌은 '놀랐다', '충격을 받았다', '두려웠다', '수치스러웠다'인 반면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평균점수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느낌은 '즐거웠다', '흥미로웠다'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일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인 전체에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성희롱의 태도유형에서 남, 녀간의 차이가 있는 결과가 다른 지역에서도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2) 청소년 성희롱 피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내용, 느낌, 대처반응, 후유증, 요구 등을 확인하여 보다 명확한 청소년 성희롱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요구되며,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간호 중재 방안을 개발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청소년 성희롱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인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모형 구축이 필요하다.

4) 청소년 성희롱 가해자를 대상으로 성희롱 지식, 태도 및 성 가치관 등을 조사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공미혜 (1993). 여성연구논집 : 은폐된 성, 과장된 성: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여성연구(부산여자여성문제연구소), 제 4집, 27-47.
- (1995). 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여성학, 제 11집, 114.
- 구수경 (1993). 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여성학적 고찰. 부산여대 여성연구, 88-108.
- 김명옥 (1984). 고등학생의 성지식에 관한 실태조사. 적십자 간호.
- 김민정 (1997). 여대생의 아동기 성학대 피해경험과 심리 사회적 손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야자 (1986). 도시 청소년의 서에 관한 지식과 태도 조사. 간호학 논집, 제 9집, 연세대학교 간호학 연구소.
- 김양희 (1995). 성희롱 :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방안.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제2권(1), 17-32.
- 김영희와 이명화 (1997). 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3(2), 255-275.
- 김익기 (1991). 현대사회 문제. 서문 : 사회문화연구소.
- 김태련 (1990). 사회적 성과 강간. 정신건강연구, 9, 1-13.
- 김학준, 강기원 (1995). 직장에서 플레이보이를 봐도 됩니까, 여성신문사, 서울.
- 나영숙 (1994). 성희롱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 (1996). 성희롱의 헌법적 연구 - 미국에서의 Sexual Harassmen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현이 (1995). 비행청소년의 여성관과 성폭력과의 관계. 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자료집 (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서울, 29.
- 시사저널 (1996). 성폭력 공화국. 엄마, 선생님이 이상해, 제 352호, 7월 25일자.
- 신성자 (1993). 직장에서 발생하는 성적 성가심의 유형, 부정적 영향 그리고 피해여성의 개인적 상황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 제 5집, 경남대 사회과학 연구소, 93-110.
- 신혜숙 (1996). 성희롱에 대한 여대생의 태도유형. 여성건강 간호학회지, 제 2권(2), 147-163.
- 심영희 (1989). 성폭력의 실태와 법적통제. 한국여성학, 제5집, 131.
- (1991). 새로쓰는 성 이야기 : 성폭력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또하나의 문화, 제8호, 140-148.
- 여성민우회 여성노동센터 (1998). 남녀 직장인 성의식 및 성문화에 관한 실태보고서.
- 이성은 (1995). 직장내 성희롱의 순응과 저항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필화 외 4인 (1994).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안의 모색 -지침서 개발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11집 : 113-145.
- 장필화, 조형 (1991).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제8집, 이대 한국여성 연구소.
- 정대현 (1988). 성문화의 오늘과 내일 : 지배문화와 남성

- 문화. 또 하나의 문화, 제4호.
- 조정아와 조혜순 (1991). 새로 쓰는 성이야기: 직장에서의 성적 폭력. 또 하나의 문화, 제8호, 108-139.
- 중앙일보 (1996). 아동 성폭력 연 10만건 추정 -신고 1%. 40판, 7월 10일자.
- 최은순 (1994). 근절되어야 할 폭력 - 성희롱. 민주여성, 제16호. 한국여성단체연합.
- 최영애 (1977). 친족 성폭력의 실태. 정신건강연구, 13, 1-20.
- 최희정 (1985).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경험, 지식 및 태도 조사연구. 목포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 한국여성민우회 (1993).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조사.
- 황은자 (1989). 성교육 담당교사의 성역학 고정관념적 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rican Association of Uneversity Women. (1993). Hostile hallways :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merica's Schools. Washongton, DC :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ERIC Document Reproducion Service No. ED 356-186).
- Backhouse, C., & Cohen, L. (1978). The secret oppression :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Toronto : Macmillan of Canada.
- Bille Wright Dziech, Linda Weiner 저, 동인기획실 역(1992). 캠퍼스의 성희롱. 동인, 서울.
- Bryant, A. L. (1993). Hostile hallway :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merica's Schools. Journal of School Health, 63, 355-357.
- Catharine A. Mackinnon (1979). Sexual Harassment of Working Women. Yale Uneversity Press, New Haven and London.
- Charney, D. A. & Russell, R. C. (1994). An overview of Sexul harassment.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1, 10-17.
- Corbett, C., Gentry, C. S. & Pearson, Jr. W. (1993). Sexual harassment in high school. Youth & Society, 25(1), 93-103.
- Crocker, P. (1983). A Analysis of University Definition of Sexual Harassment. Signs, Summer, 696-698.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1993). Guidelines on Harassment Based on Race, Color, Religion, Gender, National Origin, Age or Disability. 29. C.F.R. 1609.
- Fitzgerld, H. F. (1991). Sexual harassment : The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a construct. In M. Paludi(Ed.), Ivory power : Sexual harassment in Academia and workpalce. (pp 21-44). Suny Press.
- Friedman, Joel. (1992). Sexual Harassment, 우영은 옮김(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서울: 여성사.
- Gutek, Babara, A. & Dunwoody vera (1987). Understanding Sex in the Workplace. Women and Work : an Annual Review. Vol. 2. 253-254.
- ILO (1992). Conditions of Work Digest : Combating Sexual Harassment at Work. Geneva : ILO, 11-12.
- Jan C. Leventer. Sexual harrassment and Title XII : EEOC guidelines, conditions, litigation and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 Larkin, J. (1994). Sexual harassment : High school girls speak out. Toronto : Second Sexual Press.
- LeBlanc, A. N. (1993). Harassment at school : The truth is out. Seventeen(May), 134-135.
- Livingstone (1982). Response to Sexual Hatassment on the Job, Legal, Organizational and Individual Ac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5.
- Michele, A. Paludi & Richard B. Barickman (1991). Academic and Workplace Sexual Harassment.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ny N.Y.
- Pukett, D. (1985). Reaction to Workplace Sexual Harassment. Signs, Summer, 696-698.
- Roscoe, B., Strouse, J. S, Goodwin, M. P. (1994). Sexual harassment : Early adolescents' self-reports of experiences and acceptanccd. Adolescence, 29, 515-523.
- Stanko, Elizabeth A. (1988). Keeping women in and

- out of Line Sexual Harassment and Occupational Segregation, Edited by Walby Sylvia. *Gender Segregation at Work*, Yale Univ.
- Stein, N., Marshall, N. L., & Tropp, L. R. (1993). Secrets in Public : Sexual harassment in our Schools.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at Wellesley College and the Now Legal Defense and Education Fund.
- Strauss, S. (1988). Sexual Harassment in the school : Legal implications for principals. National Association of Secondary School principals Bulletin, 72, 93-97.
- Tangri, Sandra S., Burt, Martha, R. & Johnson, Leanor B. (1982), Sexual Harassment at Work : There Explanatory Models. Journal of Social Issues, 38(4).
- Toupey Maree Luft. (1997). Learning About the Self : Adolesceng Gerls processes of Overcoming Sexual Harassment A Educational psychology. University of Calgary, Alberta.
- Watkinson. A. M. (1995). Hostile lessons : Sexual harassment in schools. The Canadian Administrator, 34, 1-12.
- William Petrocelli & Barbra Kate Repa (1992). Sexual Harrssment On The job. Nolo Press Berkeley Berkeley Ca.
- Yaffe, E. (1995). Expensive, illegal, and wrong : Sexual harassment in our schools. Phi Delta Kappan, (November). 1-14.

- Abstract -

Key concept : Adolescence, Attitude of sexual harassment,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A Study of the Attitude and Experience for Sexual Harassment in Adolescence

Chung, Eui Nam · Park, Shin 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which 573 students from 2 high schools in Kang Nung city participated was to identify the attitude and experience of sexual harassment. This information will provide useful data, and promote a more systematic sexual harassment education program.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78 male students and 295 female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September 25 to October 6, 2000.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Computer package, SPSS to manipulate the data along with frequency, percentage, and mean t-test.

The results from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sults from this comparison between two groups were significant in their attitude on sexual harassment ($t=-2.26$, $p=0.024$). Female students had higher scores than male students.

2. As a cause of sexual harassment, 'A man's misjudgement regarding a women as sexual objects ($n=130$; 22.7%)', 'Patriarchal system of unequal distribution of power and status between the sexes ($n=105$; 18.3%)', 'The effect of sexual stimulatives. (pornography, pornovideo, TV program ect.) ($n=89$; 15.5%)'.

* Yeongdong college

** Kyunghee university

3. As a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Punishment, law and regulation of the sexual harasser(n=151; 26.4%)', 'A preventive education of sexual harassment in adolescence (n=125; 21.8%)'.

'Reformation of gender inequality and sex discrimination in the socio-structure(n=76; 13.3%)'.

4. Out of 573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209(36.5%) students reported experiencing an incident of sexual harassment. For 278 mal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88(31.7%) had experienced an incident of sexual harassment. For the 295 females who participated in this study, 121(41.0%) had experienced an incident of sexual harassment.

The type of sexual harassment is reported

physical sexual harassment(n=248; 40.5%), verbal sexual harassment(n=226; 36.7%), and visual sexual harassment(n=139; 22.6%).

5. Their age in which they had experienced harassment was usually 'after 16 years of age(n=122; 58.4%)'. The age of harassers were mostly teenagers(n=112; 53.6%). The relationship to the with sexual harasser was a stranger (n=85; 40.7%), or a friend(n=78; 37.3%). After the incident of sexual harassment occurred, some students informed friends (n=114; 54.5%), 63(30.1%) told no one.

Male students' feelings after the experienced harassment ranged from: 'be interesting', 'be pleasant'. Female students' feelings after the experienced harassment ranged from: 'be surprised', 'get a shock', 'fear', 'shame'.